

통합시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제’ 전남광주 모두 적용

출자·출연기관 임원 시장과 일치...조례안 입법 예고

임원 연임 ‘1년 단위’로 결정...노동이사 의무화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에서 만 시행하던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일치제’를 전남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1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기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만 적용하던 기관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의 시장과의 임기 일치를 전남까지 확대해 전남광주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이사와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옛 광주 조례와 비교하면 세부 규정도 일부 달라졌다.

기존 조례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단순히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데 비해 개정안은 ‘1년 단위 연임’을 명시해 최초 2년 뒤부터는 1년씩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화하고 200명 이상은 2명, 200명 미만은 1명으로 정수를 통일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광주시가 2023년 도입

한 임기일치제를 통합시 전체의 공통 인사 원칙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통합 직전 광주시는 공사·공단과 출연 기관 19곳 가운데 11곳이 시장과 임기를 일치시켰지만, 전남도의 공사·출연기관 23곳은 도지사과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이전부터 기존 광주·전남의 각 산하기관장 임기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관장을 새 시장 임기에 맞춰 일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부칙에 조례 시행 전 임명돼 임

기가 남은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장은 그 예외가 될 수 있다.

통합시는 옛 전남 23곳과 광주 20곳 등 공공기관 43곳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통합·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유사 기관 25곳은 유사 기능으로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 중 한 기관을 청산해 다른 기관에 흡수하면 청산 기관장의 자리

가 없어질 수 있고, 양쪽 법인을 모두 청산해 새 기관을 만들면 양 기관장 모두 기존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전략추진단 관계자는 “부칙상 규정은 현재 존재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기관 통합 때 어느 기관을 청산하고 어느 기관을 존치하느냐에 따라 기관장 임기 보장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입법 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생명존중 안심마를 참여기관 지정 협약식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생명존중 안심마를 참여기관 지정 협약식에 참석한 입법 동구청장과 신규 참여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광주교통공사, 자동문 비상 개방 시스템 개발

방풍문·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6곳 실증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역사 내 화재나 정전 발생 시 자동문 작동 불능으로 인한 이용객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oT 기반 ‘자동문 비상 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6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수요기술 과제로, 지역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지하철 역사 내 방풍문과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에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소방 신호와 연동해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인식

하고, 정전으로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내장된 비상전원을 통해 자동문을 비상 개방하도록 설계됐다.

공사는 지난 12일 광주도시철도 상무역 내 방풍문 4개소와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2개소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화재신호 입력시험과 전원 차단(정전) 모의시험 결과, 시험 대상 6개소의 자동문이 모두 정상적으로 비상 개방됐으며, 비상전원 유지시간과 신호 전달 안정성 등 검증항목에서도 요구 기준을 충족했다.

공사는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화재·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의 고립 위험을 줄이고, 역사 내 비상대응 역량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지역기업과 실증기술 고도화 및 공동특허 출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은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력과 도시철도 현장의 안전 수요를 결합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안전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농기원, 청년 창농기업 ‘스케일업’

내달 16일까지 접수...3곳 안팎 선정해 개소당 1억5000만원

기업분석·역량강화·전문가 멘토링 거쳐 사업모델 고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창농기업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전남광주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16일까지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고 시장 진입 성과를 낸 청년 창농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과 경영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기술원은 3곳 안팎을 선정해 개소당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생산·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기업 컨설팅, 브랜드 고도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규모는 2027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7년 사업부터는 대상자 선정과 기업 육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편한다.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기업분석과 역량강화 캠프, 예산평가, 전문가 멘토링, 결선평가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사업모델과 경영전략을 보완한 뒤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농기업이 기업분석과 교육, 멘토링을 통해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지 1년 이상 지난 18~45세 청년농업인 △스케일업농업인이 대표를 맡고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창농기업 △농업기술원 관할 22개 시·군에 본사를 둔 창농기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접수는 오는 9월16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시·군별 신청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용철 전남광주농기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청년농업인의 창업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며 “창농타운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농기업이 지역 농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8월 친환경농산물에 보성 무농약 참다래

맛과 향·저장성 향상...“건강한 농산물 생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보성 ‘무농약 참다래’를 8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참다래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함유해 면역력과 소화·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다. 향산화 물질도 풍부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보성에 거주하는 하진경씨(38)는 1980년부터 부모가 일구는 참다래 농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2009년 시작한 친환경 재배를 계승해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늘렸으며, 2024년부터 공동단지 인증에서 개인 인증으로 분리 전환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농장을 운영하

고 있다.

현재 하씨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1만 2775㎡ 규모의 과원에서 연간 20~30t의 참다래를 생산해 약 1억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생산한 참다래는 선별을 거쳐 kg당 4000~1만5000원에 판매되며, 보성물·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직거래와 해금골드키위·회전참다래 등 영농조합법인, 친환경유통업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지역축제에도 참여해 친환경 참다래를 알리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